



제 40호

의정활동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전화:(053)602-5125 FAX:(053)943-7948 <http://www.gb.go.kr>



경상북도의회



독도(獨島, Dok do)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

Contents



일출 (감포 문무왕 수증왕릉)

- 001 신년사
- 002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 004 상임·특위활동
- 012 도정질문
- 030 5분 발언대
- 033 의회소식
- 038 의원동정



친애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04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국운이 널리 퍼지고 응도 경북의 눈부신 발전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화합과 안정을 이루어서 희망차고 밝은 새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북은 안정된 성과를 일구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전도민이 합심하여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전국체전의 상위 입상을 비롯한 지방분권 시대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면서 응도 경북의 위상을 높여 온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WTO와 한·칠레 FTA 협정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 보다 농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에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농업의 활로를 열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중에서 60%를 차지할 정도의 경제 응도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 성장의 배경에는 도민들의 숨은 땀과 노력, 그리고 경북 특유의 기백인 의리와 독심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300만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갑신년 새해에도 영광과 도약의 한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모든 도정 현안문제를 폭넓은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의의를 확고히 정착시켜 도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가일층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과 정비 그리고 제도개선 작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현지확인 활동과 함께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과 견제로 폭넓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협조관계도 넓혀가면서, 우리 경북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모범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중앙정치의 구태와 낡은 사상의 모습이 아니라, 지방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알차고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지방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올 한해도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1.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제 181 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181회 임시회는 2003년 9월 18일 개최하여 10월 2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5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는 9월 18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변경의건, 제14호태풍매미로인한피해및복구지원상황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 회기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지역현지확인과 안전심사를 통하여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가결하였다.
- 10월 2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해외연수및국제친선교류활동결과보고를 한 후 제18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182 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는 2003년 10월 21일 개최하여 11월 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10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2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도정질문(채희영, 장미향 의원)을 한 후 휴회하였다.
- 또한 10월 22일(수)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손만덕, 박종욱, 황복희 의원)을 한데 이어 10월 27일(월) 오전 11:0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 회기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태풍피해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 11월 4일(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정기 의원)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제182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183 회 정례회

- 경상북도의회 제183회 임시회는 2003년 11월 20일 개최하여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28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1월 20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보호 의원, 김석호 의원, 김정기 의원)을 청취한 후 제183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 회기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4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 12월 1일(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권경호 의원, 임원식 의원, 장욱 의원, 김순견 의원)을 하고 12월 16일(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황상조 의원)을 청취한 후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처리하였으며
- 12월 19일(금)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04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한 후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제 184 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184회 임시회는 2003년 12월 22일 개최하여 12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9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2월 22일(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4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 회기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2003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 12월 26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석호 의원)을 청취한 후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7건),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후 2003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제181회 임시회

[2003. 9. 16(화) 11:00]

- 제182회 임시회회기 협의의 건

제182회 임시회

[2003. 10. 21(화) 13:10]

- 제183회 제2차 정례회회기 협의의 건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제183회 정례회

[2003. 11. 28(금) 15:00]

- 제184회 임시회회기 협의의 건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2003. 12. 1(화) 16:0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의회사무처 소관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제184회 임시회

[2003. 12. 22(월) 10:00]

- 제185회 임시회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 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기획위원회 Planning Committee

제181회 임시회

[2003. 9. 18(목) 11:00]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2회 임시회

[2003. 10. 27(월) 13:30]

- 2003년도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기획관리실 소관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183회 정례회

[2003. 12. 2(화)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12. 3(수)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 12. 16(화) 14:0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184회 임시회

[2003. 12. 22(월) 14:00]

- 2003년도 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관리실
 - 감사관실 소관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포항의료원)

행정사회위원회 Local Administration & Society Committee

제181회 임시회

[2003. 9. 30~10.1]

- 현지확인
 - 태풍피해복구상황(소규모주민시설/사회복지시설-고령군)
 - 자연환경연수원종합연수관 건립상황(구미시)

[2003. 10. 1(월) 14:00]

-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경상북도제2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2회 임시회

[2003. 10. 27(월) 13:00]

- 2003년도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183회 정례회

[2003. 12. 2(화)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3. 12. 3(수)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03. 12. 4(목)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자치행정국(자연환경연수원) 소관

[2003. 12. 16(화) 14:00]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개정조례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184회 임시회

[2003. 12. 22(월) 14:00]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 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연환경연수원)

교육환경위원회 Education & Environment Committee

제181회 임시회

[2003. 9. 25~9. 26]

- 태풍피해지역 현지확인(경주, 영천, 영양)

[2003. 10. 1(월) 11:00]

-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82회 임시회

[2003. 10. 24(월) 11:00]

- 현지확인
- 포항제철국가공단, 태풍 "루사" 산사태 복구사업장(포항 동해면)

[2003. 10. 27(월) 13:00]

-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3. 10. 28(화) 11:00]

- 2003년도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소관

[2003. 11. 4(화) 10:00]

-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83회 정례회

[2003. 12. 2(화)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예산안 심사

[2003. 12. 3(수)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 2004년도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3. 12. 4(목) 11:00]

-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84회 임시회

[2003. 12. 23(화) 10:30]

- 2003년도 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주교육청)

농수산위원회 Agriculture & Fishery Committee

제181회 임시회

[2003. 9. 22(월)]

- 현지확인
 - 신물질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
 - 구미화훼시험장

제182회 임시회

[2003. 10. 27(월) 13:00]

-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태풍피해 및 복구상황)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003년도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소관

제183회 정례회

[2003. 12. 2(화)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농수산국 소관
- 200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 12. 3(수)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농업기술원 소관
- 2004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184회 임시회

[2003. 12. 22(월) 14:00]

- 2003년도 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농업기술원 소관

[2003. 12. 23(화) 11:00]

- 2003년도 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농수산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기술연구소)

산업관광위원회 Industry & Tourism Committee

제181회 임시회

[2003. 9. 22(월) 11:00]

-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2003. 9. 25~9. 26]

- 태풍피해지역 및 문화관광개발·기업 활동상황 현지확인
(구미, 상주, 문경, 안동)

제182회 임시회

[2003. 10. 27(월) 13:00]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 2003년도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83회 정례회

[2003. 12. 2(화)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경제통상실 소관

- 2004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
계획안

[2003. 12. 3(수)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004년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3. 12. 16(화) 11:2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184회 임시회

[2003. 12. 23(화) 11:00]

- 2003년도 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구미운수연수원)

건설소방위원회 Construction & Fire Defense Committee

제181회 임시회

[2003. 9. 19~9. 22]

- 현지확인
 - 태풍 "매미" 피해현황보고 및 피해현장 방문 (영천, 경산, 청송, 영양)

제182회 임시회

[2003. 10. 23(목)]

- 현지확인
 - 구룡포~대보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
 - 경주소방서

[2003. 10. 28(화) 10:0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00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국 소관

제183회 정례회

[2003. 12. 2(화)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건설도시국 소관
- 2004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3. 12. 3(수) 11:0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소방본부 소관

[2003. 12. 16(화) 11:2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184회 임시회

[2003. 12. 22(월) 14:00]

- 2003년도 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성주소방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for Budgeting & Closing

제182회 임시회

[2003. 10. 31(금) 10:00]

- 2003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

제183회 정례회

[2003. 12. 5(금) 10:30]

-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3. 12. 6(토) 10:3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 12. 8(월) 10:3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3. 12. 9(화) 10:3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03. 12. 10(수) 10:3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3. 12. 11(목) 10:3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건설도시국, 경도대학, 소방본부 소관

[2003. 12. 12(금) 10:3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2003. 12. 13(토)]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2003. 12. 15(월) 10:30]

-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토론 및 의결
-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토론 및 의결

제184회 임시회

[2003. 12. 24(수) 10:00]

- 200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 2003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심사
-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경도대학,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 2003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 200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채 희 영 의원(건설소방위, 문경)

문

경 출신 채희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수해현장을 확인점검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복불인연이었습니다. 우선 지사님께 묻습니다. 몰락되어지고 있는 농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한 이경해씨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우리 농촌, 농업을 지켜야 하는 참 모습이었습니다. 농업인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와 거센 시장개방 압력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 9월 22일 우리 농업, 농촌의 현 상태를 "한국농업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확대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이후부터 매년 6,000톤의 중국산 찌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금년 쌀생산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줄어든 3,100만섬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생산량은 최근 10년동안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1995년의 3,260만섬보다 160만섬 가량 적은 것이고 사상 최대 풍작을 기록했던 2001년 3,830만섬보다는 무려 730만섬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은 쌀 40만톤 약 280만섬을 북한에 지원하는데다 생산량도 평년작인 3,463만섬보다 350만섬 가량 줄어들어 그동안 양정을 짓누르고 있던 과잉 재고에 대한 수급 불안은 2004년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고율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권장기준에 접근할 정도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47%인 것을 감안한다면 농가소득 역시 금년보다 2.5%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쌀값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쌀 수확량이 10% 줄어든다

는 것은 곧 내년 농업소득이 5% 가량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마치 넘어진 사람 뒤통지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농가부채경감대책에서는 9조8,000억에 달하는 상호금융대체저리지급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이 제외되었으니 몸체는 주되 뇌와 염통을 떼어버린 농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북은 옹도를 말하고 농도임을 포효하는 일상에서 실의에 빠지다 못해 자포자기하면서 한숨짓는 농업인들을 어찌할 것이며 태풍 매미로 인해 줄줄이 겹친 한많은 사연들을 어찌 달랠 것이며, 싸늘한 금년 겨울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떨며 굶주리는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촌, 농업인을 위하여는 참여정부의 공약인 전체 농림예산의 20%를 직불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공약이 지켜지는지의 확인 여부와 내년 농농업직불보조금 단가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망가지고 있는 농촌 농업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 묻습니다.

더하여 우리 농촌, 농업인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멕시코 칸쿤에서 합의안 도출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도하개발 아젠다 농업협상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며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초안문은 향후 협상의 골격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데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리하더라도 농산물 개방을 막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우리 도 농산 당국이 농민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으니 농민인들 입장에서 커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진정한 농업인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으니 天下無可無不可요, 耳聞이 目見心不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알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와 난개발로 인한 물수요의 증가와 수질오염으로 세계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3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5%에 불과하다고 학자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의 45.3%가 수도권에 집결돼 있고 연간 강수량의 66%가 여름 홍수기에 집중돼 있어 물관리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1,500m³에 불과해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최근 35년 동안 전체용수 수요는 6.5배로서 그 중 생활용수 수요는 32배로서 크게 늘어

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되고 2011부터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물이 부족하면 댐을 만들고 택지가 부족하면 산을 헐고 바다를 매립하고 심지어 농지를 형질 변경하는 등 공급위주의 정책을 추구해 옴으로써 강과 산, 바다 어느 한 곳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는 토지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상수원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된 현실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식단의대부분이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식생활로 인한 버리는 음식물만 식단의24%나 되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의 30%에 달하고 그 양은 483만2,000톤으로서 경제적 가치만도 14조7,000억원으로 수질관리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강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갈수기에는 여전히 3급수 수질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만들도 볼쓰듯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불편을 참으면서 절수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무엇보다도 사후관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떠한지요? 정화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또한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관련기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질관련 환경영향평가도 사업결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급위주의 수도행정에서 물수요 억제의 절수행정도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농어촌교육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12월 교원 정년단축 조치와 대규모 명예퇴직 급증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는 최근 3~4년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해결책으로서 교육부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2년간 특별연수를 시켜 초등에 임용하려는 소위 중·초등교사 임용방안을 도입하려 했지만 교대생들의 집단 자퇴라는 비극광 반발에 부딪쳐 이미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 지역에 3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교대에 2,500명을 특별편입생으로 교육시켜 2004년 투입 예정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

인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졸업생의 20%만 임용되는 반면 교대생들은 전원이 임용되는 목적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예퇴직 급증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과 같은 정책수립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지극히 경직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땀질하고 메우는 졸속정책을 가지고는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을 막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바다 위의 돛단배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직 후 2년 경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도 경북지역 초등교사들이 100여명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1월 타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초등교사는 몇 명이나 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학생과 교사수가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농어촌 교사수급은 여전히 되풀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대졸업생 중 농어촌 지역을 응시하는 사람은 10%~20%에 불과한 현실을 본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근무수당이나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유인책으로도 대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교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현격히 다른 양식과 양심에만 호소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차제에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교육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교사들의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승진 등 인사에서 농어촌지역 근무경력을 절대 우대하거나 의무화하고 발령 지역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강구하여 당장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절규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책임자도 교육전문가들도 모두 대도시에 살면서 대도시 교육문제만 고민을 하고 해외 조기 유학이나 막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육의 몰락에도 사상을 고쳐 먹을 때라고 봅니다. 그들 또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의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 미 향 의원(기획위, 상주)

먼

저 여성농업인의 복지부문과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의근지사께 묻겠습니다.

여성복지부문에 있어서 현재 농촌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이 처해 있는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기본통계에 의하면 2002년 통계발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중은 1970년 28.3%에서 2001년 현재 52.9%로 1980년대말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농업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노동은 물론 가사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생산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은 하루 13시간이라는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남여간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소득과 힘든 농사여건, 열악한 자녀교육환경, 육아, 보육, 의료환경 등 취약한 복지여건 등은 여성농업인들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젊고 유능한 여성들의 농촌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활동의 핵심인적자원임을 감안할 때 권익의 실질적 증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농업관련위원회의 참여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경상북도의 농정관련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농촌지역에 접하여 생활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던 농촌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촌관광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고, 농가부채의 증가와 농촌 고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여건과 복지 인프라도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관광이란 농촌은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민박,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활력을 되찾게 할 수 있도록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농촌을 생산과 판매,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일종의 복합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곧 농촌주민의 삶의 질 증대, 농촌환경의 보전, 관광객 만족 등 세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전략입니다.

즉 농촌생활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문화체험, 각종 공예·요리 등이 포함되는 만들기 체험, 자연관찰·생태학습을 테마로 하는 자연체험, 그리고 레포츠·건강을 위주로 한 모범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다음 자연자원 보존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환경과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부응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유교문화권을 포함한 3대 문화권 개발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연자원 없이 문화가 성립될 수 없고 문화의 형성 없이 자연이 가치화될 수 없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로운 접목에서만 진정한 생명과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삶과 행복을 추구해 가야한다는 본질적인 경북 도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 그 양대축은 환경과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너무 문화편중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않은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환경정책 방향과 지사의 환경마인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에 대해서 현재 우리도가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 정책들이 바람직한 자연관과 생태철학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니다.

지난 10월14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한방산업공동기획단의 주관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방육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내용은 한방의약품과 관련제품을 개발하여 세계한방시장을 선점한다는 한방의 산업화를 위해 2015년까지 연구개발과 시장개척, 시장확대 단계로 나누어 매출 2조원 목표로 기업 500개를 육성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회 당일 이미 500억 규모로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추진 중인 한방자원산업화단지 논의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상주시와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이미 작년 7월 상주시 은척면 일원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조성하는 입지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안동, 영주, 봉화, 의성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한방산업육성계획을 대구광역시보다 앞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이를 기초로 이미 산업화단지 예정부지 내에 한약재 전시관을 설치하였고,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시설설계가 용역 중에 있으며, 편입부지 50여만평에 대한 감정평가와 80%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100억원에 달하는 등 상주시와 시민들이 총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데 중간보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왜 제외되었는지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18일 처음 공동기획단이 발족할 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대구지역은 대구약령시장 등 한의약 유통시장기능, 한의약 연구발전이 핵심전략이고, 경북은 상주한방단지, 안동중심의 한방바이오타운, 구미의 한방융합기술관련 연구시설, 경주의 한방테마산업 등에 중점적으로 접근하여 한의약재 생산 및 가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 상호 간에 공동발전전략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상주시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포함하여 경상북도의 한방산업육성계획을 대구시와의 공동계획 추진에 우리 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 반영,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상주시에서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우리 도가 이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한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가장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한방산

업화와 관련한 각종 회의 등에 상주시의 관계자 및 시도 의원들도 참석시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봉사활동에 대해 도승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고 이를 권장하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장차 유능한 성인 자원봉사자로 키워 나가기 위한 예비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학생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육 그 자체이며 봉사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인성교육 차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평소 나름대로 학생봉사활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이 우선 사회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의지로 학생봉사활동의 장소로 보다 폭넓게 개방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봉사학습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연찬 및 협조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별, 교육청별로 봉사활동 대상기관, 도본청의 자원봉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학생봉사활동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하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봉사활동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간의 삼위일체식 네트워크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봉사활동의 기본 시스템은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부모가 학생봉사활동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학부모지도봉사단을 결성하여 봉사활동의 프로그램 개발지도, 그리고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등 명예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이미 충청북도의 경우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는 그 실태가 어떠한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도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덕 의원(행정사회위, 군위)

첫

째,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촌문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2/4분기 국내 총생산의 실질 성장률이 불과1.9%로 1/4분기 3.7%절반정도 수준에 머물러 실물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지난 '98년 IMF 환란 이후 4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경제적 불황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경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체감경기는 IMF시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럼에도 은행 문턱은 영세기업들에게는 하늘처럼 높고, 돈줄은 막혀 버렸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이나, 고용증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라리안 지정업체 외의 도내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운영자금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도라 일컫는 우리지역의 경제와 주민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촌지역 경제가 20여년만에 최악의 흉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농가부채,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쌀과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업과 농촌경제는 문자 그대로 황폐화되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농촌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이긴 합니다만 농촌을 소생 희망이 없는 시한부 인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농촌은 우리 생명의 근본이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도가 앞장서서 농촌경제, 농촌문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를 비롯한 중앙,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기구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관한 복안이나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WTO, FTA협상체결 후의 농업의 전망과 대책,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강화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3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쌀생산조정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내전체 경지면적의 29만3,740ha의 1.48%인 4,300ha가 신청해서 앞으로 3년동안 휴경지로 방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쌀생산조정제도가 국가안보상이나 정서상 으로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임을 전제하면서 쌀생산조정제의 시행에 따라 휴경되는 땅에서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해충발생과 구제책임 문제, 3년동안 농작물 경작없이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잡초는 물론 온갖 잡목이 크게 성장하여 인근 농토에까지 장기적으로 미칠 농경지 황폐화 문제, 주변 농민들의 노동의욕 저하 등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점이 19일 MBC 9시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볼 때 쌀생산조정제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쌀생산조정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특히 금년처럼 흉년이 들어 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또한 예상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기후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환경이 어떻게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신청하면 3년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보존·보수 및 도굴·도난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지금 경주에서는 국·내외의 큰 관심 속에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당초의 관람객 유치목표인 1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9월과 2000년 9월에 이어 3회째 개최 중인 이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세계인의 문화축전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역문화사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세계적 문화축전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역문화사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세계적 문

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저력은 바로 경북지역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들의 보존·보수가 미흡하거나 도난, 도굴을 당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이 전혀 불가능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수난을 당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재관리 대책만으로는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88건으로 금년 8월 현재 완료 54건, 공사 중 50건, 설계 및 발주 중 184건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금년 4/4분기인 현시점에서 완료가 18.75%, 공사 중 17.36%, 설계 및 발주 중인 것이 무려 63.88%로 아예 문화재 보수사업은 손을 놓고 있는 듯 합니다. 조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보수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말까지 예상하는 사업진척과 금년도 도내 문화재의 도난과 도굴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도난·도굴 방지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찰 목재를 깎아 먹는 흰 개미떼의 피해는 발생한 것이 있는지 또한 문화재관리와 전통문화 보존·전승시책 수립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도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경주 불국사 대웅전의 지붕기와가 날아가는 등 문화재 22건을 비롯하여 사적지 및 명승지를 포함하면 11개 시·군에서 모두 61건으로 잠정적인 피해규모는 총 9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대책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203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에 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1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표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실이 어떤 수준인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IMF를 비롯하여 최악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교역의 경비가 들어가는 사교육에 기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속에서 학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무용론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교육대계(教育大計)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여 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도 공급자인 학교·교사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위주로 그 중심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교육정책 당국은 제7차 교육과정개혁이 시행·정착된다면 교육의 다양화와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붕괴된 공교육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낙관하였으나 제도의 시행 후 실제로는 그 반대의 모순과 괴리현상들이 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수의 교육주체들을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교육이 자기계발과 진로선택, 입시, 사교육비 절감 등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아 공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새 교육정책 제1순위가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감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감께서 주창하고 계신 3대 인간성 교육내용과 교육중기발전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 '경북교육 2006'의 내용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약한 현재의 교육행정체제야말로 말로는 교육백년대계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교육이 천발대우를 받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 중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종사자의 위상과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당위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교육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 농어촌지역 교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보상은 물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교사수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교사들에 대한 과감한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교사들의 타지역 임용고시 응시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도시 진출을 바라는 많은 선생님들의 동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간의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는 물론, 교사 부족현상을 심화시켜 농촌교육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농촌지역의 교사수급 실태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교육환경위, 청송)

질문

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의회가 좀 재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91년 지방자치부활로 어실픈 지방자치법 때문에 4대 때는 그래도 임명제 지사를 했고, 임명제 시장·군수제도하에서 지방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이 지방자치법이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는 도의회와 광역자치단체가 어쩌면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를 보고 질타하고 규명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오월동주라고 한배를 탔다고 같이 살아가는 방향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가 행정부지사실을 접거하고 요구사항을 내놓을 정도로 이제 하향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기초자치단체 행사장에 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립이 안 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에 손을 댈 때 잘못 데었기 때문에 도 국회가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아으로 이 위상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를 지사에서는 지사협의회나 중앙부처 회의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기능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2004년 4월이 되면 고속전철이 개통됩니다.

되면 아마 대구공항, 포항공항, 예천공항 이제 앞으로 1,25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생기는 울진공항이 과연 공항구실을 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 얼마만한 피해가 오는지 또는 울진공항이 동북아중심의 항공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양공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 향후대책이나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알

고 싶습니다.

말씀 많은 경도대학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는 이것도 털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의회 부활이후에 경상북도 의회에서 가장 두고 두고 후회해야될 결의안을 만들어 준게 그 당시에 바로 예천도립전문대학입니다. 지금의 경도대학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처리한 결의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당의 힘을 믿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의 처지는 행방불명입니다. 장래의 계획이나 운영문제도 사실상 지금 앞으로 막연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당시에 2대학장 서영수학장에게 질의를 할 때 교수채용문제 등등해서 분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였고, 또한 본의원이 2001년 12월 3일 본회의장에서 그렇다면 경도대학문제를 굳이 어려운 지역에 놓아두고 할 필요 없이 대구인근에 제2캠퍼스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규명을 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것도 연구대상이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그마치 4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상주, 문경, 안동, 영주 이 4개 시를 번두리에 두고 복판에 예천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앞으로 향후대책은 더욱 어려워 지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정위원이 우리가 1,440명인데 딱 지금 50%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고 혹이나 지금 지역에서 한참 말씀이 많습니다. 아마 예천지역에는 특히 더 많습니다마는 혹이나 우리 재단 이사장 되는 도지사님과 학장과의, 요새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인사의 코드가 잘 안 맞는지, 안 맞다면 빨리 떨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물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하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칠곡에 있는 교육원이 설령 나중에 예천하고 바꾸어진 다해도 예천에 교육원이 가고 학교가 이리 와도 됩니다. 시설은 완벽합니다. 서로가 기숙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문제도 우리가 빨리 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장 고추가 우수한 지역이 영양과 청송입니다. 아마 영양의 수비초 같으면 타 시·군보다는 근당 3,000원 더 받습니다. 그런데 건고추가 과거에는 들어와 가지고 혼합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건고추를 수입해 놓으면 색깔이 틀린다 해서 지금은 물고추, 소위말하는 홍고추가 들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영양과 청송지역에 7~8개 지역에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한 20일전의 얘기인데 이 문제로해서 청송지역의 농민회 회원이 그 업자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두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를 말려놓은 것을 보면 건조를 시켜서 딱 보니까 정말 색깔도 좋고 영양의 수비초의 최우수품하고 동급입니다. 이것은 섞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청송지역하고 영양지역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무슨 도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허가를 해 준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건고추가 들어와 가지고 청송지역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15일쯤 되었는데 보관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얼마전에 이것이 제가 질문서에 놓았습니다. 이는 동에서 청송군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놓았습니다. 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느냐 하면 건고추가 들어올 때 그 중에 알이 건고추 안에 있으면서 묻어들어와 가지고 놓아두면 거기에서 벌레가 되어 가지고 이 벌레가 고추를 먹고 삽니다. 유충 때는 그래 가지고 이 유충이 성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하면 익충이고 해충이고 다 잡아먹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전에 안동대학교에 이 교수라고 이양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과거에 농산물유통센터 세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양반 얘기가 자기도 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때까지 그러면 그 많은 충이...(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애벌레 때는 이렇게 먹고 살고...(다른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 다음에 성충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저히 우리나라의 농약에서는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검역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우리 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있습

니다.

안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제 그에게 영천으로 옮기게끔, 본원이 옮기게끔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본원이 영천으로 옮겨가면 이제 북부지역에도 안동에 청사가 내일 모레 개청이 되니까 이 청사에 충분한 시설을 낼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11개 시·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는 일이 먹는 물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만 하고 있는데 이 11개 시·군에 대학이 10여개 되고 초·중·고가 392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에 식단이 있고 관광지가 있고 엄청스럽게 많습니까. 여기에 없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식품검사분석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사가 개청되고 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되니까 또 본원도 영천으로 옮겨지면 이제는 북부지역에 지사님께서 좀 선물을 하나 주어야 안 되겠나 또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나 또 도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도 식품분석팀을 내년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또 답변이 그럴 겁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압니까. 이는 이 문제는 딱 부러지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하는 답변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복희 의원(행정사회위, 포항)

첫

째, 도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에다 태풍 '매미'의 피해까지 겹쳐 도민생활이 무척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달 6일부터 연말까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제1회 자원봉사대축제의 개최 결정은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줄 수 있는 계기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축제행사 기간 중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개발 공모와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박람회 등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대축제 행사를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 내에도 1개소 및 시·군 23개소로 시·군당 1개소씩 전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도센터를 포함하여 시·군 13개소가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 된 도의 1개소와 시지역 2개소, 군지역 8개소를 조속히 설치하시기를 촉구하면서 금년도 미설치 지역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추진경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 특성과 시대적 여건에 적합한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원봉사전문가 양성방안과 실적,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영·유아보육시설 보육현황은 동별 5.7개소, 읍면 6.8개소, 면별 0.8개소로 238개 전체 면단위 지역 중 50%인 119개 지역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가 없는 읍·면도 있으며 보육시설 설립주체도 공립이 겨우 8.7%에 불과하고 90%이상이 민간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영·유아 보육률이 시지역, 면지역, 읍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광역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을 동일하게 지방으로 단일화시켜 놓은 현행 보육비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의 보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역 및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육지불제 도입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해 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방안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진출이 활발해져 경제활동 참여율이 무려 49.7%대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3년 7월 현재 전체 64만1,000명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 중 63만명이 취업 98%의 여성취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 승진, 보직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복지수준은 아직 미흡함으로 여성복지가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취업박람회의 개최실적과 성과, 공공근로사업의 여성참여 내역,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실적 및 취업알선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여성복지, 여성권익 증진,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국제협력사업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오는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3.1%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3년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1.7%로 전국 평균 8.3%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의 단계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취업대책 등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가구는 전국 64만 3,543가구이며 이중 경북이 7만 7,413가구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타지역에 비해 독거노인이 많은 우리 도가 외롭고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추진한 시책의 내용과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문기 사업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함께 향후 이러한 사업을 보완하고 보다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갈수록 노인성질환, 특히 치매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과 노인치매 전문 요양시설의 구체적 병상 설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병원 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간 호도우미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치매예방활동 및 재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가정에 미치는 고통과 어려움은 물론 건전한 가족관계 손상 및 노동력 상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성 환자 치료대책을 단지 자녀들의 효심에만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당사자와 가족 우리 사회가 당해야 하는 그 피해와 비용을 감안할 때 노인들에게 흔히 오는 당연한 질환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인성 치매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체계구축, 또는 범사회적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전문병원에 입원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입원비가 최소 100만원에서 약간의 치료가 부과되는 경우 250만원이나 되는 소득원이 있는 소수의 가정의에는 보통 업무도 못낼 형편입니다.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정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상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 부부, 또는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높은 치료비뿐 아니라 노인성 치매는 치료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한 가정은 입원치료보다 자가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성 전문병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원예산 내용을 밝혀주

시고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략)

본의원은 현재 경북지역 교육문제의 최대 현안은 고교평준화 추진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평준화 지역인 경북지역 평준화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조기에 지역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안정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과 결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의 경우 포항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교서열화에 따른 학생, 학부모,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 사교육비의 증대 등 학교 교육의 폐단 해소를 명분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학부모 등이 중심이 되어 포항지역 고교평준화 반대 범시민교육협의회를 결성하고 학력의 하향평준화, 빈부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 등을 이유로 고교평준화 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교육의 쟁점 현안인 고교평준화 추진문제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학생수준에서의 적절한 교육이 실시되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예측은 빗나가고 입시과열과 대학서열화로 오히려 새로운 우열화 현상을 초래하여 사교육비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적 경기침체와 경제불황으로 가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사교육비만큼은 1년새 42%나 급증해 가계지출의 부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가계파산과 노년빈곤을 불러오고 지역 및 국가 경제적으로는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사교육비의 경감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경 호 의원(기획위, 영양)

문 저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경상북도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지역균형개발을 도정의 지표로 삼고 경북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중점 개발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미, 포항을 잇는 남부권역과 의성, 영주, 인동을 잇는 북부권역의 개발 및 발전상태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북부권역은 인구감소는 물론 획기적으로 발전할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 포항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내에 집중되어 있어 북부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으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극도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북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대구와 구미, 그리고 포항을 개발의 축으로 해서는 더 이상 경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북부권의 발전을 통하여 경상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경북도청이 북부권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경북 북부의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안동댐과 인하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댐에 인접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특히 댐의 건설로 인한 기상 변화는 대기오염, 농산물 피해, 질병등을 발생시켰고 자연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겨울에는 극심한 혹한에, 봄기울에는 심한 안개 등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인내하며 그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지만 이제 보상의 차원에서는 물론 경북의 형

평성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청이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둘째로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내수면 어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이 처한 상황은 도무지 앞날을 분간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절박한 상태입니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큰 우려와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기상변화에 따른 흉작으로 인한 소득감소,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 등 농가는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태에서 한차례 자유무역협정, DDA협상이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 농업의 붕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정에 대한 특단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농민들이 농촌에 살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고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한 한 가지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경상북도 내 내륙지역에서의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물고기연구센터의 부족한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지금 한 명뿐인 연구사를 대폭 보충하여 실질적인 내수면 어업의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동안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각종 토속어종의 전문적인 양식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되면 레저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내 각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낚시 레저가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참붕어를 비롯한 쏘가리, 메기, 동사리, 통구리 등 환경친화적 토속어종의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각 하천 등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다음은 농촌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농촌주민들의 생존기반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정지역이어야 할 농촌이 실제로는 농촌 어디를 가나 잡다한 쓰레기, 폐비닐, 폐영농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는 쓰레기를 모으면 불에 태워 처리하며 정작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처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환경호르몬을 다량으로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소각의 피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법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불법소각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설치와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농촌은 도시처럼 분리수거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리수거의 목적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농촌에도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견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농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의 멕시코의 칸쿤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다룬 제5차 세계무역기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농업지도자 이경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은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농민이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농업개방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업개방은 곧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당시 농업분야의 선언문대로 진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2010년에 우리 농민의 소득은 현재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을 중요 산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 경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농업개방을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드세다고 해도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북 농업의 발전 없이는 경북의 발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만이 살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경북이 해왔던 사업과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민선3기 2년을 계획하는 가운데 농업에 대한 대책과 비전을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등을 비롯하여 모든 경상북도의 미래계획에 첨단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비중으로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성장동력산업을 농업부문에서 구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낙동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취지 아래 지난 '98년 정부와 시·도 합동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특별법은 효과적인 수질보존 및 관리라는 훌륭한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 오염총량제 실시 등 상류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던 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경북 북부지역에는 국가적 물문제와 산업고도화 정책을 위해 지난 '76년과 '92년에 안동댐과 임하댐이 각각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 지역 내에 두 개의 댐이 건설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1,660ha나 되는 막대한 농경지를 수몰시키고, 연 200시간이나 단축된 일조시간과 댐 건설 이전 연 38일이던 안개일수가 무려 20일이나 증가된 연 58일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 및 농작물 생육지장, '76년 182.65km²에 달하는 광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규제로 인한 낙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로 낙동강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 제재 속에서 희생과 피해를 강요당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이야말로 국가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시행상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가뜰이나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규정의 제정이나 제정운영 등에 관해 조율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 위원회의 회의에서 지사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을 위해 활동한 업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주민숙원사업, 농로확장 등의 지원금으로 안동 91억원, 청송 36억원, 영양 15억원, 상주 9,500만원, 예천 1억 4,000만원, 봉화 1,000만원, 포항 4억 4,000만원, 경주 10억원, 영천 23억원, 경산 2억 5,000만원, 청도 35억원, 고령 9억원 등 228억 4,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물이용 부담금 지원의 지역선정 기준과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낙동강특별법 시행 이후 금년까지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현황과 보상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 원 식 의원(산업관광위, 울진)

첫

째, 2년 연속 수해피해 문제에 대하여
2년 연속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번 매미 태풍 피해는 인재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하면서 매년 장마와 태풍이 반복되는 우리 나라의 기후여건으로 볼 때 이는 사전에 예견되는 사안으로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안전진단 및 점검이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댐질식 복구와 의례적인 피해로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무감각해진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후의 댐질식 복구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수해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 경북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로 농어촌은 희생은 강요당하였고 농촌경제는 침체와 공동화현상에 이르렀습니다.

농업은 거대한 태풍 앞의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어 농촌의 참담한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한 세계 농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압력은 거세지고 한·칠레 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쌀이 우리 나라에 밀려들어올 경우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대다수 농가는 쌀 농사를 포기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민족농업을 지키고 생존권을 위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시

농산물 개방 반대시위에 참가한 우리 나라 농민 대표 한 분이 자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경북 농민들은 FTA 비준 반대를 위해 상경하여 정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많은 농민이 구금되고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만 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농정의 실패, 농업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하루 빨리 중앙정부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에게 제시하고 농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상북도도 이제는 중앙정부에 기대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곧 입법화되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과 아울러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도라고 자처하는 경북의 농산물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북도가 "2003파워브랜드"에 출품한 12개 품목 중 고작 1개 품목(성주 풍경참외)만 파워브랜드로 선정된 것만 보아도 경상북도 농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며, 이제는 양반을 따질 때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안전성이 있는 유기농업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잘사는 희망찬 농촌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는 적절한 시기에 치루어지는 미래 경북농업의 획기적 발전의 시작이라고 보며, 울진친환경 농업엑스포를 경북농업의 모델로 삼아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울진친환경 농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예산과 친환경농업 기술력을 확대 지원함은 물론 경북도 차원의 홍보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결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행정·정치·경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불균형적인 상태로 지속되어 왔던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참여정부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곧 법이 제정되면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추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경상북도 공무원 조직과 시스템을 살펴볼 때 분권시대를 맞아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지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한국의 관료조직은 “보이지 않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투표와 상관없이 집권을 하고 끈질긴 생명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의근 지사님께서 3선 출마 금지라는 법의 제약 때문에 2년 후에는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경북 공무원 조직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지시하는 일만 하는 소극적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것 같아 본 의원은 염려되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의 각종 사무의 권한이 이양되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 등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조직운영, 인력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결정권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간의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하며 사업을 관리해야 할 주체가 바로 조직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을 개혁하여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는 공무원의 교육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미래를 준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집행부와 경북도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도의회에 사무처직원 인사권이 이양되어 올바른 자치체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급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까지 공무원 5급 승진은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지방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심사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심사에서는 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단체장의 인사전횡 등 심사제의 폐해를 사전

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난해 말 재개정하여 심사결과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올해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 5급 승진제도를 완전시험제 또는 시험제, 심사제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직 5급 승진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6급 고참 공무원들의 경우 그야말로 업무와 평점관리를 물론 시험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심사제와 시험제를 병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시행방법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아 해당공무원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즉 5급 승진을 심사제로 50% 반영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갖고 누구를 대상으로 심사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제를 실시한다면 언제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하루빨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견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외치면서 정작 공무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여 많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한다면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대민 행정서비스의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있을 5급 승진제도에 대한 인사기준과 방침을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북의 어민생존권에 대하여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영세민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 근해에서 조업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대형트롤어선, 기업형 쌍끌이 어선의 불법 마구잡이 근해 조업으로 인해 어자원이 고갈되어 더욱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금지규정을 해양수산부가 어업금지구역의 조정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써 동 규정의 해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해안 근해에서 대형 트롤어선, 기업형 쌍끌이어선의 조업을 수산자원의 보호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률 검토 및 조례 제정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옥 의원(건설소방위, 군위)

첫

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대책입니다.

2000년도 말 인구 및 주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995년 이후 5년 동안 총인구가 3.4% 증가한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7.7%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까지는 23.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노인복지의 제도적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인 7.7%보다 훨씬 높은 11.7%로서 전국에서 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인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현황과 운영실적,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규모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 35,000원에서 50,000까지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이나 월 8,400원씩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비는 현실에 비추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 이 나라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각종 경로우대 비용은 지급금액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의 시설수용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쇠한 노인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강진단 수혜의 폭을 기존 시설 수용자 외 농촌지역의 70세 이상 모든 노인 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 시행해오다 2003년부터 중단된 노인건강강좌도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비용 최소화를 위한 차원에서 다시금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노인문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특단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학계와 민간단체, 전문연구기관의 관계전문가들을 망라한 가칭 “고령화사회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금년 9월에 발생한 태풍 제14호 “매미”, 그리고 금년 2월 18일,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등의 자연재해와 인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안전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도 여지없이 드러내었는데, 예를 들면 도청을 비롯한 재해대책기관부터 시설과 장비가 손상되거나 정전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신경과 안일함을 증명해 준 것이라 봅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100여명의 인명피해와 1조 5천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세계경제 10위권임을 자랑하는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면서 아쉽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도 재해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대책뿐 아니라, 주민대피, 비상식량 및 식수공급,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재해지역 중에서 2년 이상 반복된 지역과 피해정도를 말씀해 주시고, 반복하여 피해를 입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 위험축대, 산사태발생예상지역, 강·하천범람지역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인구 문제와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초입인 12월이 시작되는 지금 농촌지역은 막 수확이

를 끝내고 흐뭇한 마음으로 한해 동안의 영농수지결산서를 맞추어 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둘러본 우리 농촌은 유년히도 심했던 잦은 비와 저온현상, 수해와 태풍으로 추수를 끝낸 지금 1년 동안 애써 지은 농사로 얻은 수확의 기쁨은커녕 저절로 나오는 한숨소리 속에 주름살의 깊이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내 많은 농촌지역은 수년 째 밤이 되어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깊은 적막감으로 덮여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급, 전입세대 경품증정 등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촌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인위적인 수단으로 쉽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너져 가는 농촌, 죽어 가는 농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계청이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인구가 10년 사이에 총인구 대비 13%대에서 7%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농촌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유·소년층의 비율이 10년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농촌의 붕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마음의 고향이 사라지는 것이며, 결국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정서와 정체성을 허물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농촌문제, 농업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정의 실패 속에 농업인을 무시하는 정부당국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모두 여섯 번의 농가부채 대책을 내놓았습시다만 농가부채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업분야에 무려 6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문자 그대로 물 붓듯이 쏟아 부었지만 농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별로 없고 농민들의 빛은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을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노인들이 경영하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 그래서 이제부터 도태시켜야 할 하나의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정의 기본방향을 농업에서 농업인, 농촌으로 조속히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중심에서 지역,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업을 통한 농촌 살리기가 아니라 농촌을 살려 농업과 농업인을 살려내자는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산성이나 가격 경쟁력이 없고 숫자도 적은 농업인들에게 직불제를 확대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 영세소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고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해도 생산성이 낮은 농업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됩니다. 이들 저소득 영세농업인을 적극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위지역을 비롯하여 우리 도는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재해보험이 몇 년 동안 연거푸 발생한 수해로 누적 적자가 커 보험금을 지급하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원인이야 어디에 있는 정부와 농협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해나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앞으로 더 많아져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용, 농업인재해공제제도의 확대 시행, 그리고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우리 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농촌을 황폐한 절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서기 어린 희망의 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농촌문제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와 같은 조직과 인력, 예산 지원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어촌지역 교육붕괴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의 교육 사정은 황폐화하여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만 졸업하면 도시지역으로 전출하고, 교사 역시 현직에 있으면서 임용시험을 통해 대거 도시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 자리는 계약직 교사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중학생 중 군위군 218명, 칠곡군 1,141명, 울진군 444명, 봉화군 303명, 고령군 160명, 청송군 72명 등이 인근 도시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군단위 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이 한층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 붕괴 현상은 불합리한 학교급제도에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하루 빨리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탄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남의 거창고교와 같이 농촌지역 학교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 계획, 그리고 추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 의원(교육환경위, 포항)

첫째, 도금고 선정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1일자로 우리 도는 도금고를 여수신 규모, 자기자본 비율 등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이용의 편리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금고취급의 노하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공급 능력,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일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옮겼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역시 지난 2002년 11월 25일자로 농협중앙회로 옮겼고 금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우리 도와 거래하면서 창출된 수익금을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업인 환원사업, 공익사업, 상품개발, 도 출연사업 지원, 시·군 출연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북도를 위하여 지원하고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연간 당기순이익이 도금고에서 약 80억, 교육청 금고에서 약 60억 등 140억원이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농협중앙회의 우리 도를 위한 지원 및 기여는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농협중앙회는 우리 도 및 교육청과 거래하면서 창출한 순이익금을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 지원액을 대폭 증액시킬 것을 요구하며 특히 급식조례법이 통과 실시되는 시점에는 국내 산 농·수·축산물 중에 경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현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협과 재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을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실시될 주5일 근무제도로 인하여 여가 및 건강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개인적인 건강증진은 물론 친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만여 축구동호인이 참여하는 경북리그는 향후 우리 경북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성공여부를 갈음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은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국비 25억, 도비 27억 6,400만원, 시·군비 77억 1,430만원, 기금 47억 2,830만원 등 총 167억 660만원을 투입하여 다섯 개 생활체육공원의 조성사업을 비롯, 50개 사업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0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예산투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 경북리그 축구대회를 비롯, 18개 사업에 도비, 기금, 출연금으로 총 17억 4,838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예산투입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기능과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들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생활체육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그 연계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과 소방정보화 구축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해 및 재난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장비 현대화와 소방정보화의 구축이야말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소방장비의 보유 부족현황은 고가차 1대, 물탱크차 7대, 굴절차 6대, 화학차

5대, 구급차 8대, 구조차 8대 등 34대이며 보유장비 중에 노후장비는 펌프차 83대, 물탱크차 3대, 고가차 2대, 화학차 1대, 구조차 2대, 구급차 30대, 순찰차 10대, 지프차 10대, 기타 19대 등 총 160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과연 이와 같은 노후장비와 부족한 장비로 현대의 복잡다단한 재해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개발 지역의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매년 취학아동 숫자가 줄어서 학급 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경북도내 포항, 경산, 구미 등 일부 지역 특히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은 해당지역의 초등학교가 교실난을 겪고 있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당장 교실난 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당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포항시 남구 2동 지역은 신흥 주택개발지역으로 인구가 해마다 증가해 학교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동초등학교는 인근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등학교생의 수요예측과 학구조정을 잘못해 교실 수가 크게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초등학교는 정원이 24학급 840명이 적당한 규모이지만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현재 전교생이 1,835명으로 학급 수가 무려 43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교실난을 해결하기 위해 별관 4층에 7개 교실과 운동장 한가운데 12개 실을 증축하여 총 19개 실을 2004년 중반까지 완공할 목표로 증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동초등학교의 증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신축과정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고려한다면 하루 빨리 신설 초등학교가 개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립전 예산배정 및 집행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고 집행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가 미처 생각 못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을 모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에 대해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도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선 집행한 경우가 2차 추경예산 중 배정금액 262억 7,486만원 중 67.5%에 해당하는 177억 4,096만원이 선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총 예산 배정의 62%를 차지하는 교육청 본청의 경우 예산배정금액 163억 4,550만원 중에 선 집행한 금액이 138억 2,214만 원으로서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선 집행된 예산입니다.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격차가 나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그에 다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도의회의 의결도 없이 선 집행된 예산이 약 67.5%이며 특히 본청의 경우 85%에 이른다는 것은 마치 경상북도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경과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감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기 의원(농수산위원회)



본 의원은 지난 5월, 경상북도 실업팀을 비롯한 체육회의 선수·임원 및 예산집행 내역을 알고자 서면질문하였으나 선수·임원의 신원에 대한 내용만 내놓고 돈 쓴 내역을 아직까지 제출치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본의원의 소속 농수산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여러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돌아오는 말은 돈 쓴 내역이 공개되면 물의가 야기될 수 있다며 못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받은 예산집행에 있어 무슨 숨길 일이 많고 중대한지 모르겠으나 도민의 대표인 의원은 알면 물의가 일어나고 관계자나 공무원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다는 논리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도의원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상북도의 체육진흥사업의 총예산은 186억 8,11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 증액되었습니다. 농수

산개발비 9% 증액에 비하면 놀라운 증가폭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면질문하였으나 이렇게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면 본회의장에서 공개답변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행사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0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었으나 의회는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 그 경영을 분리한다고 했으나 해마다 경상북도는 재단의 기금 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예산과 행정력의 집중은 실로 우려할 수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경제가 시들어가고 있고 사회가 이념 갈등으로 양분화되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어도 우리 경상북도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1,000억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쓰도록 승인만 해 줬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감사나 조사를 심도 있게 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및 조사 대상 규정에 재단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그 뒷이였습니다. 법령에 금지된 조항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때, 많은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도 자체 사업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중략)

정보호 의원(교육환경위원회)



본 의원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수익금 중 일부를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운동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중략)

엑스포 개관 2개월만인 지난 10월 15일 입장객 150만 돌파기념 경품행사에서 총액 얼마의 경품을 걸었는데 광고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경품금액이 200만원이나 되었는지요? 총액 대비 몇 %나 찾아가지 않았는지, 예견되지 않은 무특정 일에 경품행사를 하면서 경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광고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중략)

이상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감사·조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의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히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도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들을 상세하게 밝혀서 이 자리에서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입장객의 유치를 위해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연초부터 여러 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홍보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경북교육청이 수차 협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고 도교육청은 엑스포조직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각

종 회의 때마다 여러번, 여러 곳에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 도내의 거의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 소풍, 서클활동 때 체험학습의 장으로 경주문화엑스포장을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북도의 학생이 엑스포입장객의 반수는 채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장객 면에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루었다며 협조에 대한 보상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장객 150만 돌파기념을 위해 거액의 경품비를 쓰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2001년도부터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고사리 같은 어린 학생들의 손으로 현재까지 21억여 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린 새싹의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찬 사업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위대한 사업을 우리 경북의 어린 학생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성공적인 결과에 학생들의 힘이 있었다면 경북도 학생들의 협조에 보답하고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모금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엑스포 수익금의 일부를 난치병학생돕기 성금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2003경주엑스포 결과보고는 11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담당자가 인터넷에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빨리 발표하고 그 내용 속에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이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분 발언대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3. 11. 20)

김석호 의원(산업관광위원회)



건 설교통부에서 발표된 김천, 구미 고속전철역사의 설립 발표는 우리 경상북도에 경주와 더불어서 교통 역사가, 고속철도역사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 되었습니다.(중략)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은 1차 교통망이었던 경부선 철도와 또 2차 교통망이었던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구 등 광역 대도시는 지하철, 전철을 3차 교통망으로 채택하여서 이미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2차 교통망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제4차 교통망인 고속철도의 개통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울진이나 청송이나 경북지역의 농어촌지역에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교통 낙후성을 앞으로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중략)

경상북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 수도권과 비교해서 지방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접근성입니다.

금년 초에 구미공단에 LG필립스 LCD공장이 파주공장 건립을 결

정한 이후에 삼성코닝이 또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LG정보통신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우리 나라 대기업은 기업, 수도권기업총량제가 없다면 수도권 인근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통접근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과 연계한 경비행기, 노선화된 경비행기의 도입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대체교통수단을 도입하지 아니하고는 경북의 낙후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어질 때 경북의 인구감소는 한국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화되는 인구감소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북의 조속한 새로운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의 특성인 관광산업과 경제산업을 육성시키는데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는 장기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해서 새로운 대체교통수단을 만들어 주시고 또 도저히 농촌지역에서 지금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비용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현재의 노선버스를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서 봉고차도, 승용차도 주문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공영제를 도입해서 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리고 더욱더 교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를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 발언대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3. 11. 20)

김정기 의원(농수산위원회)



본 의원은 지난 4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한 후 일부 관계인들의 오해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문방송에 좋지 않게 비취진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해 주신 결과로 관계인들의 오해였고 본 의원의 발언에 별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로 인하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열려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해명하느라고 시간과 공력이 들어야 했습니다.(중략)

일부 단체가 민의의 전당에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선도위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비난성명을 발표하면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하니 이러한 단체들의 입력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민의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도의 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이 의의가 가서 하는 일입니까? 그 다음의 일을 위하여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의회를 수사기관으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의원이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에 있어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과잉된 것은 조정하는 등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까지 체육회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듣고 본 의원과 의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게 됐는지 그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해명이 우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지사가 체육회 회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특정단체가 주장한다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대변자 같이 편향 보도하면서 근거도 없이 월권 놀부심보 운운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피해까지 주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면 이 또한 이 지역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혀서 의회의 권위와 본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장님! 본 의원과 열여덟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발의안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반려하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수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상 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지난 달 11월 21일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특별조치 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로 이제 연구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연구원의 입지 선정 문제가 대구·경북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연구원 입지 선정 용역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의 대구지역내 입지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으로서 연구범위에 대구라는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향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초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동남권 전체의 최적 입지라는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의 테크노폴리스 용역 결과와 대경과기원의 입지 선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회로서는 경북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한 용역결과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동안 대경과기원의 설립입법 추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대구시의 국회의원과 교수들조차도 분명히 밝히는 바와 같이 입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계획과 분리하여 외국이나 제3의 연구기관에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 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체에 본 의원은 연구원 입지 선정에 대하여 설립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외국기관이나 제3의 연구기관에 대구·경북과 뜻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입지 선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경북도의회와의 협조는 반드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셋째, 대구·경북의 공동발전과 동남권 전체의 연구개발 허브로서의 기능, 산업기반과 연계한 입지를 모색한다면 새로이 부지 조성 등에 경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대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 13개 대학과 테크노파크와 진량 자인산업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고속도로 등 기반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경산, 그리고 포함은 물론 울산, 경남, 부산 등 동남권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곳으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경산시 일원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경과기원이 비록 당초에 대구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역 정가의 지지와 특히 며칠전 경산시의 경산학원도시협의회 구성시 13개 대학 총화장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구원의 경산유치 의지와 열기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중략)

김 석 호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전국 공단으로는 최초로 연간 수출 200억 달러를 지난 12월 19일에 돌파했으며, 올 연말까지 250억달러 수출이 예상되어 명실상부한 수출산업 기지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수출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95년 이후 8년동안 400%의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수출 성장세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LG전자의 PDP TV, LG필립스 LCD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 등 최첨단 전자제품으로 앞으로도 수출전망이 밝은데다 현재 조성 중인 제4공단의 기업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시가 세계 속의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이 확립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비약적인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장과는 거꾸로 곧 교통인프라는 오히려 과거보다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경북의 교통정책은 개인 교통수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미시민들은 구미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 중 첫번째가 교통문

제 정도로 구미의 교통환경은 열악하며 국제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공항 접근 및 편의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중략)

세계화된 지구촌은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으로 교통접근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기업들은 구미로의 교통접근성이 어려워 회사를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수도권이나 경기도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 기업 총량제가 완화되면 중·대기업에서도 공항 인근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칫 지역산업의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같은 교통불편에 그나마 지난 3년간 한정적으로 운행되던 구미~대구 공항간 공항버스도 운송업자의 막대한 결손으로 인해 지난 12월 11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항버스는 구미와 대구 국제공항간을 매일 12회 왕복 운항하면서 외국 바이어를 비롯한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국가산업단지의 생활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지역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항버스의 운행과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미공단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비롯한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제품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미~대구공항간 공항버스 운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교통인프라도 더욱 확충하여 지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산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보·소·호·의정

의·회·소·식

PROVINCIAL COUNCIL NEWS PHOTO



▲2004 신년 인사회





제야의 종 타종식(삼사해상공원)



신년사



2003 경상북도의회 송년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2003 경북중소기업대상 시상식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과 간담회

의·회·소·식

PROVINCIAL COUNCIL NEWS PHOTO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



경상북도의회 지원인사와의 간담회



중국하남성 부성장일행 도의회 방문



일본나라시현의회 교류단 방문



희망 2004 이웃돕기 캠페인



안동 정신시설 대성그린빌 위문



칠곡노인시설 성가양로원 위문



경찰청 전·의경 위문금 전달



경주 모자시설 애가원 위문



정신시설 청용산 요양원 위문

의장단 Chair Group



최 원 병 의장(경주)

- 2004. 1. 29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의회 대변인 제도 신설 등을 제안
- 2004. 1. 17 의장실에서 초도순시차 우리 도를 방문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을 맞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등의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
- 2004. 1. 14 의장실에서 경북지구JC회장단을 접견, 신년인사 및 환담
- 2004. 1. 14 도청강당에서 열린 제7회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수상자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9 의장실에서 자문교수단, 고문변호사단과의 간담회를 주관,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협의
- 2004. 1. 8 도청강당에서 열린 경상북도의회 2004년도 신년인사회를 주관, 참석한 기관단체장과 덕담
- 2004. 1. 7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도여성협의회 주최 여성신년인사회에 참석, 축사
- 2004. 1. 5 경주현대호텔에서 열린 경주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씀
- 2004. 1. 2 한나라당도지부에서 열린 한나라당도지부 주최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씀
- 2004. 1. 2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매일신문사 주최 2004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새해덕담
- 2003. 12. 31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열린 제야의 종 경북대종 타종식에 참석하여 타종하고 도민들에게 신년사
- 2003. 12. 31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훈·포상 수여식에 참석, 고품질 쌀생산 시책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
- 2003. 12. 29 의장실에서 CBS포항방송의 신년특집 대담방송에 출연하여 2004년도 의회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2004. 1. 1일 방송)
- 2003. 12. 5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03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 2003. 11. 29 도청전정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22 안강읍 옥산리에서 열린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5 경주보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13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2003년도 경북리그 시상식에 참석, 축사 및관계자 격려
- 2003. 11. 11 수원 농촌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 2003. 11. 8 포항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3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7 경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2회 도민체전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성식에 참석, 격려사 및 관계자 격려



김 선 종 부의장(안동)

2004. 1. 29 안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주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자치에 대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2004. 1. 28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지방분권 촉진방안 및 후속과제 발굴방안에 대해 토론
2004. 1. 19 사회복지시설인 안동 재활원과 대성그린빌을 방문, 생필품 등을 전달
2004. 1. 17 의장실에서 열린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의회방문 행사에 참석,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방안 등을 협의
2004. 1. 9 의장실에서 열린 고문변호사·자문교수 초청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을 협의
2003. 12. 30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분권 혁신협의회 워크샵에 참석,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협의
2003. 12. 23 안동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안동교육발전자문회의에 참석, 지역교육 발전 현안을 논의
2003. 12. 19 일본나라현의회 의장일행의 의회방문 행사에 참석, 양 도·현간 교류증진 방안을 협의
2003. 12. 17 경주 아리원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경북연맹창립 제57주년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2. 12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3 경상북도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2003. 12. 11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제6차 임사회 및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2003. 12. 4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1. 19 안동시민종합회관에서 열린 제12회 경상북도 자활·자립상 시상식에 참석, 축사
2003. 11. 14 경북도립 경도대학에서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
2003. 11. 12 대구·경북분권혁신협의회 공동의장 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협의
2003. 11. 7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경북생물건강산업 육성전략 심포지엄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1. 6 안동국학진흥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1. 6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제84회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해단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선수단 및 관계자 격려



정 무 응 부의장(울릉)

2004. 1. 17 의장실에서 열린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의회방문 행사에 참석,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방안 등을 협의
2004. 1. 9 의장실에서 열린 도의회 고문변호사·자문교수와의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방안을 협의
2004. 1. 8 도청강당에서 열린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기관단체장과 환담
2003. 12. 19 의장실에서 열린 일본나라현의회 의장일행 방문행사에 참석, 양 도·현간 교류증진방안을 협의
2003. 12. 10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2003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2003. 11. 18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3년도 새농민회경북도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2003. 11. 17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 참석, 당면 의정현안사항을 협의
2003. 11. 7 대구 국제보상공원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손 규 삼 위원장(포항)

- 2004. 1. 28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의 현안사항을 토의
- 2004. 1. 15 포항 햇빛마을 및 선린애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위문, 생필품 전달
- 2003. 12. 23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등 10여명의 소외계층을 방문,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
- 2003. 11. 8 흥해읍 등 관내 10개 읍면동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청취



방 유 봉 간사(울진)

- 2004. 1. 17 평해읍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농연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8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2004년도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참석인사들과 신년인사
- 2004. 1. 3 울진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4년도 신년교례회에 참석, 참석인사들과 덕담
- 2004. 1. 1 후포면 등기산에서 개최된 신년 해맞이축제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2. 31 울진 불영사에서 거행된 제야의 종 타종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2. 26 경진회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2. 26 도의회에서 열린 2003년도 도의회 송년회에 참석, 도의원 및 참석인사들과 환담
- 2003. 12. 18 후포 청년회의소에서 개최된 2004년도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12 후포 소방파출소청사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

기획위원회 Planning Committee



박 성 만 위원장(영주)

- 2004. 1. 19 영주 대화예식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
- 2004. 1. 8 도청강당에서 열린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참석인사들과 환담
- 2003. 12. 31 영주시 영주동 분수대에서 열린 2003해너미행사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12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경상북도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21 도립 포항의료원에서 2003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1. 19 안동시민종합회관에서 열린 제12회 경상북도 자활자립상 시상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3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2003경북리그 시상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8 영주소방서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장 하 숙 간사(영주)

2004. 1. 15 풍기인삼시장 상가회의실에서 번영회장 자격으로 인삼시장총회를 주관하고 풍기인삼 홍보 및 판매방안을 협의
2004. 1. 15 영주시 휴천동 아르미에서 열린 경북여성문학회 제3회 문집발간 기념회 및 시낭송회에 참석
2004. 1. 5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 참석, 격려사 및 관계자 격려
2003. 12. 23 영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영주지역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 지역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
2003. 12. 17 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주시 여성지도자대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2003. 12. 13 영주 라이온스회관에서 열린 '철쭉라이온스봉사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2. 9 풍기인삼시장 홍보전시관에서 열린 안동MBC 주관 '인삼의 효능과 인삼요리' 특집 방송에 참석, 풍기인삼을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2003. 11. 17 풍기인삼시장 번영회사무실에서 열린 '구곡 시문학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회장에 취임, 취임사 및 문학인 관계자들을 격려.
2003. 11. 8 영주소방서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부녀의용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



권 경 호 의원(영양)

2004. 1. 8 도청강당에서 열린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참석인사들과 신년인사
2004. 1. 1 일월산 햇맞이축제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덕담
2003. 12. 27 관내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 노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2003. 12. 26 도의회에서 개최된 2003년도 송년행사에 참석, 도의원들과 의견교환
2003. 12. 12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경상북도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1. 21 도립 포항의료원에서 2003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립의료원 운영 내실화를 촉구
2003. 11. 8 영양 소방파출소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의용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



박 경 동 의원(울릉)

2004. 1. 8 도청강당에서 열린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참석인사들과 덕담
2003. 12. 26 도의회에서 개최된 2003년도 송년회에 참석, 관계인사 및 도의원들과 환담
2003. 12. 17 칠곡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도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2. 12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2. 10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11.21~29 경상북도의회 기획위원회가 실시한 2003행정사무감사에 참석, 3개 도립의료원 및 경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박 두 필 의원(상주)

2004. 1. 19 상주시 만산동에 소재한 천봉산요양원을 방문, 떡국용 떡과 쇠고기,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2004. 1. 8 도청강당에서 열린 2004년도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참석인사들과 덕담
2003. 12. 16 김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문화상 시상식에 참석, 수상자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 2003.11.21~29 경상북도의회 기획위원회가 실시한 2003행정사무감사에 참석, 3개 도립의료원 및 경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2003. 11. 8 상주소방서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



장 미 향 의원(상주)

- 2004. 1. 19 상주시 만산동 천봉산요양원을 방문, 떡국용 떡과 쇠고기,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 2004. 1. 8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2004년도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참석인사들과 덕담
- 2004. 1. 7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경북여성 신년교례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덕담
- 2003. 12. 19 상주 화북면 입석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축사 및 주민들과 환담
- 2003. 11. 26 영남대학교 국제관에서 개최된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쉽 세미나에 참석, 특강을 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1. 9 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상주곶감마라톤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10km 구간을 완주
- 2003. 11. 8 상주소방서에서 개최된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소방공무원 및 부녀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

행정사회위원회 Local Administration & Society Committee



김 희 문 위원장(봉화)

- 2004. 1. 4 새해 해맞이 행사 등반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2 봉화 충혼탑을 참배하고 관계자 격려
- 2003. 12. 30 춘양재향군인회관 준공식에 참석, 축사
- 2003. 12. 19 봉화군기술센터에서 개최된 환경농업대학 수료식에 참석, 인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17 봉화 버스정류장앞에서 열린 이웃돕기성금모금 캠페인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6 봉화문화원에서 열린 문화학교 수료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8 봉화군 춘양면사무소에서 열린 기술센터북부지소 개소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18 봉화군민회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력다짐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1 봉화군민회관에서 열린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인사 및 관계자 격려



이 현 준 간사(예천)

- 2004. 1. 1 2004년도 해맞이 행사에 참석
- 2003. 12. 1 7예천 휴웨딩에서 열린 「예천 JC창립 기념식 및 신규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
- 2003. 11. 28 예천 용문면소재 예천청결고춧가루처리장 현장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3 예천 '청죽라이온스클럽 창립 및 헌장전수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3 예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1주년 소방의 날기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4 예천 양수발전소 하부담 이설도로 착공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2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예천군 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김정자 의원(울진)

- 2004. 1. 23 울진읍 청년회가 주최한 경로잔치 웃놀이 대회에 참석, 어르신 위로 및 신년인사
- 2004. 1. 3 울진JC가 주최한 울진군지도자 신년교례회에 참석, 새해덕담
- 2003. 12. 26 울진군 출신 출향공무원 경북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축하 및 관계공무원 격려
- 2003. 12. 17 군청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의 자투리 991모금운동 3주년 기념식 및 배분 전달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캠페인 전개
- 2003. 12. 15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울진JC창립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하
- 2003. 12. 5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위원 합동 토론회 참석
- 2003. 11. 25 대구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문화상 시상식에 참석, 지역의 수상자들을 격려
- 2003. 11. 18 2005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심포지움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3 울진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2003년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에 참석한 읍면을 순회방문 격려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논의
- 2003. 11. 8 울진 구수곡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숲속 음악회'에 참석, 인사 및 관계자 격려



손만덕 의원(군위)

- 2003. 1. 10 군위군 소보면 청년회 제11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하 및 격려
- 2003. 1. 8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에 참석, 신년인사
- 2003. 1. 1 군위 충훈탑에서 가진 신년참배행사에 참석
- 2003. 12. 29 군위군 효령면 참전용사회 결산총회에 참석, 축하
- 2003. 12. 23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위로타리클럽 창설10주년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2 군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군위군수기 탁구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29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군위JC 창립26주년 기념식 및 신·구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1 군위 위천둔치운동장에서 열린 제41주년 소방의날 행사에 참석, 축하
- 2003. 11. 8 포항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에 참석, 선수단 격려
- 2003. 11. 1 군위여자중학교에서 열린 제14회 군위군협회장기테니스대회 개최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우성호 의원(영주)

- 2004. 1. 20 영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의정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현안과제 해결 및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
- 2004. 1. 6 풍기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한방산업연구자 워크숍에 참석, 토론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24 풍기읍 산법리 영주 소백산 눈썰매장 개장식에 참석, 축하
- 2003. 12. 19 영주시 대화예식장에서 열린 장애인종합복지관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2 영주시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참석, 인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11 영주시민회관에서 거행된 제7회 은빛노인대학졸업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5 영주 시민회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참사랑자선음악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7 시내 대학광복대기념공원에서 열린 무공수훈자 전공비 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5 소백산 풍기온천에서 열린 소백산풍기온천 입욕객 100만명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1 영주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의·원·동·정



장 대 진 의원(안동)

- 2004. 1. 9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03년도 안동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0 안동시민종합회관에서 열린 안동시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7 안동 신리예식장에서 열린 경상북도 장애인 재활협회 '재활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5 안동시민종합회관에서 개최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3 안동시 태화동 소재 노인지도자 대학에서 북부지역 지도자 노인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 실시
- 2003. 12. 12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03 경상북도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9 안동시민종합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자활·자립상 시상식에 참석, 관계자 및 수상자 격려
- 2003. 11. 15 안동시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1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4회 새마을한마음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6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경북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 선수단 격려



황 복 희 의원(포항)

- 2004. 1. 15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총·효·예 실천운동 포항시지회 창립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13 한국여성 불교연합회 경북지부 포항불교여성회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
- 2004. 1. 8 2004년도 포항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신년인사
- 2003. 12. 30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3년도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9 포항북부해수욕장에 열린 포항과메기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9 포항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03년도 여성자원활동자 연말수련대회에 참석, 대회사
- 2003. 12. 20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흥해 향토청년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9 포항JC 2004년도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교육환경위원회

Education & Environment Committee



권 준 택 의원(칠곡)

- 2004. 1. 13 북삼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북삼읍 여성 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 관계자 및 소방대원 격려
- 2004. 1. 6 칠곡군 동명면 남원2리 현장에서 개최된 동명 구덕도로 확포장공사 개통식에 참석, 공사관계자 및 지역주민 격려
- 2004. 1. 3 칠곡군 가산면 다부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가산청년협의회 회장단 이 취임식에 참석, 회장단 및 청년협의회원 격려
- 2003. 12. 29 칠곡군 종합복지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칠곡군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9 지천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지천면청년협의회 창립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6 가산면 다부2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격려
- 2003. 11. 27 칠곡공공도서관에서 개최된 디지털자료실 개관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8 칠곡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한 알뜰마당 행사장을 방문, 새마을지도자 및 행사 참여주민 격려
- 2003. 11. 14 지천면 연호2리(나환자집단촌)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지역주민 격려



김 준 호 의원(영천)

2004. 1. 29 영천시 금호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 및 조합원 격려 영천문화원에서 개최된 영천발전위원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4. 1. 28 영천시 재향군인회에서 개최된 향군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4. 1. 27 영천시 신녕면 소재 성덕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 학생 및 대학관계자 격려
2004. 1. 27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전용일 국군포로 시민 환영대회'에 참석, 관계자 및 참여 시민 격려
2004. 1. 25 영천시 신녕면 '정주권 사업설명회'에 참석
2004. 1. 23 금호읍 냉천마을금고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및 조합원 격려
2004. 1. 22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방특구지정응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2004. 1. 19 대구 동구 소재 포석정에서 개최된 재구 영천향우회 연말총회에 참석, 축사 및 향우회원 격려
2004. 1. 11 금호읍사무소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 참석, 축사 및 참석자 격려
2004. 1. 10 영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여성연합회 주관 신년교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2. 23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 경북 한방육성 공동기획단 전체회의 참석
2003. 12. 20 영천시 완산동 소재 영천 그린환경센타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2. 20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연합회 전진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박 승 학 의원(청송)

2003. 12. 6 현서면에서 개최된 지역현안대책 녹색회 추방결의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2003. 11. 29 안덕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인사말 및 노인 위로
- 2003.11.20~25 청송지역 추곡수매장을 방문하여 추곡수매 관계자 및 지역농민 격려



박 종 욱 의원(청송)

2004. 1. 30 부남면 농협지소에서 열린 43기 청송농협조합 대의원대회에 참석, 축사 및 대의원 격려
2004. 1. 7 청송읍 한식당에서 열린 '재청송 안동고 동문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
2003. 12. 18 청송읍 덕리에서 열린 청송소방파출소 개소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정 보 호 의원(구미)

- 2004. 1. 15 구미금오공과대학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발기인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9 구미웨딩에서 개최된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사회 및 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2 구미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구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
- 2003. 12. 30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구미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구미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구미시교육청 주관 구미교육 실적발표 및 평가회에 참석, 발표자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22 구미 금오웨딩에서 개최된 구미시청년회의소 주관 구미JC 송년회 및 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8 경북자연환경연구수원에서 개최된 자연학습원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 참가자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16 구미시보건소에서 개최된 모자보건선도사업 평가 및 자문회의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4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수미술대전 시상식에 참석, 수상자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2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구미시장기 합기도 선수권대회에 참석, 참가선수 및 관계자 격려

농수산위원회 Agriculture & Fishery Committee



방 대 선 위원장(성주)

- 2004. 1. 27 성주군민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성주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7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실로암 양로원을 방문하고, 위문품 전달
- 2004. 1. 17 성주 선남농협에서 열린 제33기 선남농협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4 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촉구
- 2003. 12. 18 청도 "대흥농산" 버섯공장 화재현장을 농수산위원들과 함께 방문, 격려
- 2003. 12. 16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11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주관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논문발표회에 참석, 축사 및 발표자 격려
- 2003. 12. 5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03년도 양봉농가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18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3년도 새농민회 경북도회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8 성주소방서 회의실에서 열린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정 상 진 간사(예천)

- 2004. 1. 14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 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회의실에서 열린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참석
- 2003. 11. 7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강 영 서 의원(봉화)

- 2004. 1. 14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 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회의실에서 개최한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촉구
- 2003. 11. 7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김 정 기 의원(김천)

- 2004. 1. 14 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14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종사자 격려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
- 2003. 11. 7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김 주 연 의원(칠곡)

- 2004. 1. 14 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14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성가양로원을 방문, 생필품등의 위문품 전달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 확산방지 대책 조기수립 촉구
- 2003. 11. 7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의·원·동·정



양재경 의원(청도)

- 2004. 1. 14 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 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참석
- 2003. 11. 7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이상효 의원(경주)

- 2004. 1. 19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민제양로원과 애가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 격려
- 2004. 1. 14 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9 관내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
- 2003. 12. 23 양돈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양돈협회중앙회장으로 부터 감사패 수상
- 2003. 11. 7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이용석 의원(구미)

- 2004. 1. 20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도계자비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 격려
- 2004. 1. 16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성심요양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 격려
- 2004. 1. 14 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회의실에서 개최한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
- 2003. 11. 7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이정백 의원(상주)

- 2004. 1. 17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천봉산요양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 격려
- 2004. 1. 14 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도의회 농수산위회의실에서 개최한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
- 2003. 11. 7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산업관광위원회 Industry & Tourism Committee



김 석 호 간사(구미)

- 2004. 1. 15 구미시 수출 200억불달성기념 경축 한마당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14 구미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시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6 구미JC특우회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2 구미JC창립 제29주년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8 미래로타리클럽 창립총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18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구미지대 창설 제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6 2004년도 경북지구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하
- 2003. 12. 13 금오밝은세상포럼 개소식에 참석, 축하
- 2003. 11. 27 강동로타리클럽 창립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25 2003년도 비둘기학교대상 시상식 및 수험생을 위한 난장 공연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8 제5회 LG단축마라톤대회 겸 시민건강달리기/걷기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김 병 진 의원(문경)

- 2004. 1. 16 문경시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 2004. 1. 4 제10회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신년대어배에 참석
- 2003. 12. 17 문경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2. 10 문경시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2. 7 전남 순천시·문경시 친선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30 경상북도 자연보호 평가대회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29 문경을 당포1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22 제3차 문경시 봉사단체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4 경북북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
- 2003. 11. 10 전국대학 문경새재 장사씨름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7 제41회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안 순 덕 의원(의성)

- 2004. 1. 5 의성군 신년인사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5 봉양제일교회 성탄예배에 참석
- 2003. 12. 19 의성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에 참석, 축하
- 2003. 12. 4 비안면 보건지소 준공식에 참석, 축하
- 2003. 12. 2 비안면 장춘2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축하
- 2003. 11. 25 의성군노인회 단밀면분회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축하
- 2003. 11. 18 의성군노인회 평가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농촌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
- 2003. 11. 18 구천면 노인회 게이트볼장 방문, 관계자 격려
- 2003. 11. 16 다인천주교 추수감사절 미사에 참석
- 2003. 11. 13 안계면 체육공원 개장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11 다인면 신락원복지관 준공행사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의·원·동·정



임 원 식 의원(울진)

- 2004. 1. 30 울진군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4. 1. 1 신년타종식 행사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2. 30 울진 교통장애인 송년 위안행사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2. 15 울진군 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하
- 2003. 12. 14 울진군민건기대회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25 대구TBC 및 경실련 주최 환경문화상 시상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18 울진군 친환경농업엑스포 심포지움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13 울진군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12 울진후포 소방파출소 청사 준공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8 경북생활체육협의회 주최 직장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7 제5회 울진교육축제 개막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1. 2 울진군 테니스협회장기타기 테니스대회에 참석, 관계관 격려



한 혜 련 의원(영천)

- 2004. 1. 28 2004년도 제45차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16 영천시 화산면 청년회 정기총회에 참석, 유공자 시상
- 2004. 1. 15 2003년도 경상북도 태권도협회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 감사패 수상
- 2003. 1. 13 영천시 청년회의소 사무실 이전식에 참석, 격려
- 2003. 12. 23 영천시 여성대회 및 제6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15 2004년도 영천시 청년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5 2003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 2003. 11. 28 2003년도 여성지도자 경제교육에 참석, 특별사업 발표
- 2003. 11. 17 2003년도 경상북도 새마을회 종합평가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3 제12회 새마을 한마음합창 경연대회를 개최, 대회사 및 관계자 격려

건설소방위원회

Construction & Fire Defense Committee



이 달 위원장(경주)

- 2004. 1. 29 경주현대호텔에서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초청 특강
- 2004. 1. 20 경주시 구정동 소재 민제양로원을 위문하고 관계자 및 수용노인 격려
- 2004. 1. 9 경주시생활체육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경주시JC특우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9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 및 소방공무원 격려



황 상 조 간사(경산)

- 2004. 1. 30 경산시 어린이집 · 놀이방연합회장 이 · 취임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29 경산시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9 경산시 신천동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인 성락원을 위문 관계자 및 원생 격려
- 2003. 12. 23 경산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10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4 한국기계섬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28 경산문화회관 개관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9 경산시장기타기 직장클럽축구대회에 참석, 축하 및 임원 · 선수 격려



권 중 연 의원(안동)

- 2004. 1. 27 안동 풍산농업협동조합 제43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9 안동시 서후면소재 안동재활원을 위문, 관계자 및 원생 격려
- 2004. 1. 9 안동소방서 청송파출소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소방공무원 격려
- 2003. 12. 24 안동농협에서 지역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2003. 12. 17 안동소방서 풍산파출소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소방공무원 격려
- 2003. 11. 9 경산시장기타기 직장클럽축구대회에 참석, 축하 및 임원 · 선수 격려



김 기 대 의원(성주)

- 2004. 1. 27 성주군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9 수륜면 신평리 소재 노인보호시설인 실로암양로원을 위문, 관계자 및 원생 격려
- 2004. 1. 11 수륜면 농업경영인총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0 초전면 봉정리 복지회관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7 수륜면 농촌기술자협의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6 성주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9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 및 소방공무원 격려



박 영 화 의원(고령)

- 2004. 1. 19 성산면 어곡리 장애인보호시설인 성요셉재활원을 위문, 관계자 및 원생 격려
- 2004. 1. 13 고령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 실시
- 2004. 1. 12 평생교육 및 고령노인복지 개강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7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설명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5 고령군 새해영농교육에 참석, 관계자 및 참석자 격려
- 2003. 11. 9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 및 소방공무원 격려

의·원·동·정



윤 경 희 의원(청송)

- 2004. 1. 20 청송JC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7 청송장애인협회를 방문, 관계자 및 장애인들을 위로 격려
- 2004. 1. 15 청송군 노인회관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 격려
- 2004. 1. 9 안동소방서 청송파출소 준공식에 참석, 축사 및 소방공무원 격려
- 2003. 12. 27 청송군생활체육회 노인대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10 청송군 장애인 무료진료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9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 및 소방공무원 격려



이 중 칠 의원(영천)

- 2004. 1. 29 영천시발전협의회 발기인 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28 임고면새마을금고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27 '전용일 귀순용사 영천시민환영대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9 임고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4. 1. 18 영천시 작산동 아동보호시설인 희망원을 위문, 관계자 및 원생 격려
- 2004. 1. 13 영천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9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 및 소방공무원 격려



이 호 근 의원(영양)

- 2004. 1. 27 지방도 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의견 수렴
- 2004. 1. 24 영양농업협동조합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의견 수렴
- 2004. 1. 19 새마을금고 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17 이장 연합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의견 수렴
- 2004. 1. 14 영양군수 연두순시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9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 및 소방공무원 격려



장 욱 의원(군위)

- 2004. 1. 17 산성면 및 부계면 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6 군위 우보면 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23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홍 순남 양에게 4년간 장학금 지급
- 2003. 11. 29 사고·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
- 2003. 11. 18 부계면 자치대학 졸업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9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 및 소방공무원 격려



채 희 영 의원(문경)

- 2004. 1. 17 산북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원 격려
- 2003. 12. 22 산동농업협동조합 원로복지대학에 참석하여 특강을 실시
- 2003. 12. 20 문경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에 참석, 참가자 격려
- 2003. 12. 10 문경시 다인의 밤행사에 참석, 관계자 및 참가자 격려
- 2003. 12. 5 제8회문경대상 시상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18 제12회세계정구대회 출전한 한국선수단 해단식에 참석, 우승한 선수 및 임원 격려
- 2003. 11. 14 제14회경북도지사기 정구대회에 참석, 참가 선수 및 임원 격려
- 2003. 11. 9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 및 소방공무원 격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for Budgeting & Closing



나 종 택 위원장(고령)

- 2004. 1. 29 개진면 양전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28 우곡면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4. 1. 27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경상북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 2004년도 공익사업 지원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활동에 참여
- 2004. 1. 14 성산면 어곡리 성요쇄재활원(장애시설)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수용자 위문
- 2004. 1. 13 개진면 옥산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2. 2 개진면·우곡면 건조벼 수매장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가의 애로사항 청취
- 2003. 11. 24 관내 성산·다산면 건조벼 수매장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가의 애로 사항 청취
- 2003. 11. 14 고령 대가야국악당에서 열린 통일정세 보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3 다산면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 13 고령읍 내곡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41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 5 우곡면 포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현장방문 종합민원실을 방문, 관계자 격려
- 2003. 11. 4 고령군 노인회관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김 응 규 간사(김천)

- 2004.1.5~30 김천시 관내 임인배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동반 참석 및 지역구민 격려
- 2004. 1. 18 황악산에서 개최된 삼산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 회원 격려
- 2004. 1. 3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김천시 신년교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31 김천문화회관내 시민의 종각에서 개최된 제41회 종 타종식에 참석, 관계자 및 참여 시민 격려
- 2003. 12. 21 재향군인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0 이북5도민 청년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
- 2003. 12. 16 김천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송설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2. 2 김천시 황금성당 하상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



SILLARIAN

세계를 향한 천년신라의 장인정신
경상북도 공동 브랜드 - 실라리안